

2016. 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6.3.29	대전MBC 대회의실	5/10	5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김명수, 성정모, 송인덕, 박희원, 김형주,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5	-	1	9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8	1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7건	2월
교양	KOICA박람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볼 수 있도록	KOICA박람회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함	2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퀴즈 코너 길지 않게 시간안배 필요	교양 프로그램(아침이 좋다) 퀴즈 코너 안배(3월 프로그램에는 10분 이내로 조정함)	2월
보도	아동학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한정하지 말고 뉴스에서도 다루어지길	뉴스데스크(3월 28일) 등에서 아동학대 다룸	2월
교양	방송용어 인용의 정확한 사용	방송용어 사용 교육(3월 11일)	2월
교양	대덕특구 활성화 지속적 관심을	‘사이언스 콤플렉스’(2015.6.28), ‘과학도시 대전, 성과와 과제’(2015.12.20) 등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덕특구 관련 지속적 방송함. 뉴스데스크(2016.2.25)에서도 대덕특구 기술개발 보도함.	2월
교양	코이카박람회 등 공익성 행사 지속적으로 진행해주길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고치기’(4월 11일, 서산) 공익성 행사 진행	2월
보도	늦은 나이에도 향학열 포기 않는 사람 조명해주길	뉴스데스크에서 ‘할머니 3인방 석사학위 취득’(2016.2.24) 보도	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
위원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3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3월초, 이세돌과 알파고의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이라는 타이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알파고’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이후 사람들의 관심과 화제는 인공지능과 미래로 쏠렸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안겨주었다.</p> <p>특히 대전MBC에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금증에 대응해, 특집프로그램과 시사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방영해 주었는데 중앙방송국 못지 않은 시청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한다.</p> <p>3월 14일 방영된 알파고 개발자 초청강연에 이은, 3월 20일 시사광장의 [인공지능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한 토론은 시의적절한 편성이었다고 본다. 다만, 초청강연을 시청하지 못한 시청자와 그래도 아직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시사광장 토론 시 자막을 내보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p> <p>알파고 개발자의 초청강연은 시청자로 하여금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큰 물음표를 던져 주었다고 본다(장백기).</p>	<p>앞으로 제작하는 시사광장에서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풀어 설명하는 자막 삽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p>	○		
기타	<p>대전MBC 주간소식지인 M- STORY가 창간된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그동안 45호까지 발간되었다.</p> <p>처음 M- STORY가 창간되었을 때 방송 프로그램의 지면에서 알리고 소개한다고 해서 특별한 게 뭐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평소 내가 보는 방송프로그램의 뒷 이야기나 보지 못한 방송프로그램의 소개 글을 보고 시청의 재미를 느끼게 하였고, 방송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노고를 알게 되면서 애사심(?)도 가지게 하였다. 또한 나날이 늘어가는 M- STORY의 다양한 소식은 읽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그동안 M- STORY의 주간호가 매주 발간이 되면서 지면별, 섹션별 틀도 갖추었다.</p> <p>그리고 금년 3월(42호)부터 지면 3면에 ‘대전MBC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안내란을 신설하였는데 사전에 방송 내용을 파</p>	<p>M- STORY를 2015년 5월 22일 창간호를 배포하였다. 이 후 매주 발간을 하여 지역사회에 배포를 하고 있다. 방송제작 뒷이야기와 방송 포럼, 회사 동정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작상 어려움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지역민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p> <p>의료정보 코너에는 건강관련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정분야(치과)에 대한 정보가 타 분야 보다 많지 않게 적절하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다.</p>	○		

	<p>악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이처럼 방송을 떠나 유,무형으로 시청자 편의와 시청률 향상에 힘쓰는 제작진에 감사드린다.</p> <p>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건강지킴이 닥터스’의 분야별로 고른 정보제공을 부탁드리고 싶다. 창간호부터 45호까지 의료 정보제공 중 치과 의료정보 분야가 총 13회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 분야별 고른 정보제공을 통해 편중되지 않은 M- STORY를 기대해 본다(장백기).</p>			
<p>보도</p>	<p>이세돌과 알파고 ‘구글 마인드 챌린지 매치’ . 이 달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로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달이었다.</p> <p>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와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이 인간을 대표해 펼친 대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 주었다.</p> <p>5국이 펼쳐 질 동안 언론 매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보도했다.</p> <p>경기에 앞서 예상했던 완승을 깨고 인공지능이 4-1로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렇게 빨리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 잡을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어서 그 충격파는 클 수 밖에 없었다. 중앙 방송사 못지 않게 대전mbc도 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보도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본다.</p> <p>이세돌 9단은 시합이 끝난 후 ‘ 언젠가는 알파고가 인간을 앞서겠지만 아직은 자기보다 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지만 다른 게임은 몰라도 바둑 만큼은 인공지능이 따라오기 어려울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해 왔던 터라 그 예상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이다.</p> <p>대전mbc는 인공지능에 대해 폭발적으로 높아진 관심을 적기에 보도하면서 지역 방송사의 선도적 역할을 보여준 셈이다. 앞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 보도해 주길 바란다(김학선).</p>	<p>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전국민적 관심사였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어디까지 왔고 향후 미래세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하는 기초적 질문은 사람들마다 가졌을 것이다.</p> <p>대국이 대전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되었지만 빠짐없이 취재에 나서 발빠르게 현장을 취재 방송하였다.</p> <p>앞으로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지역을 떠나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여 보도하겠다.</p>	<p>○</p>	
<p>교양</p>	<p>이번 주 시사플러스(도시 숲 월평공원, 아파트 숲으로?)는 대전시의 도시개발 측면에서 환경 보존과 토지 개발 사이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는 2가지 사례인 갑천 친수구역 개발과 월평공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어주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p>	<p>시사플러스는 PD들이 제작하는 탐사저널리즘을 표방한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이다. 소재를 선정하여 취재 및 방송을 통해 우리지역의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p> <p>현안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제제기한 사안이 그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도 한다.</p>	<p>○</p>	

	<p>본 방송에서는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다 이어그램과 함께 단계별로 제시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으며, 각 관련 단체의 주장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후 진행자가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p> <p>특히, 이번 주제는 지난해 3월 방송에서 다룬 갑천 친수구역 논란과 이어진 내용으로, 시사 플러스가 지역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사플러스가 앞으로도 1회성 방송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 정책의 추진과 운영·관리 단계까지 감시할 수 있는 가치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오덕성).</p>	<p>갑천 친수구역 개발과 월평공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는 시사플러스에서 심도있게 계속적으로 취재를 한 사안이다.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유관기관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도 관심사항이었다. 앞으로 1회용 단발성이 아닌 사안은 꾸준히 감시하도록 하겠다.</p>		
교양	<p>이번 주 테마기행 길에서는 양산에서 로맨틱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 내 봄으로 접어드는 풍경과 여러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자연, 문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로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또한 여행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양산 여행은 오랜 역사와 추억들이 가득 담겨있었다.</p> <p>양산은 자연과 예술과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으로 현대적 건물과 옛 고택이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여행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지낼 수 없었던 시청자들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체험은 부모님들의 추억과 어린이들의 동심을 이끌어내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p> <p>특히, 8개의 특별한 여행지는 양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잊지 못할 체험들이 보는 이들에게 추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유도하기에 충분해 보인다.</p> <p>아나운서와 가수의 낯선 곳에서의 만남은 유쾌하고 즐거웠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해설자들의 설명은 시청자들을 절로 웃음 짓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마이크 소리가 불안정하여 처음과 끝부분의 인사말이 들리지 않아 방송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러한 실수만 줄인다면 프로그램에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오덕성).</p>	<p><테마기행 길>은 민방소재 9곳 지역 MBC가 권역을 탈피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10년이 넘도록 공동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각 계열사의 특성에 따라 포맷과 진행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취지아래 향토적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로맨틱 양산'은 울산MBC에서 제작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기행 길>이라는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9개사의 연출자의 의도와 특성이 서로 다른 관계로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지적된 내용을 편성회의 때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p>	○	
교양	<p>토크 앤 조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시청자들이 귀감을 살만한 분들이어서 시청하기 좋았다.</p> <p>건축가 류춘수씨의 경우 살고 있는 경북 봉화마을에 직접 찾아가 야외촬영을 한 것</p>	<p>스튜디오에서 진행하다가 '건축가 류춘수씨'의 경우 직접 가택을 방문 현지인행을 하였다.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자연경관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어 스튜디오의 단조로움을 벗어나</p>	○	

	<p>은 딱딱한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야외 경관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 시청자로 하여금 마음을 넓게 해주었다.</p> <p>쇼 호스트 유난희씨의 경우 구성과 내용면은 좋았는데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뜬금없이 그녀의 신체사이즈를 소개하는 것은 욕의 티였다. 쇼 호스트와 신체사이즈 연관성이 있어서일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유덕순).</p>	<p>시청자들의 마음을 넓게 해준 듯하다.</p> <p>쇼 호스트 유난희씨 소개할 때 신체사이즈를 언급한 것은 진행자가 재미를 주기 위해 언급한 것 같다. 앞으로 제작시 본질과 벗어나는 발언은 유의하도록 하겠다.</p>			
교양	<p>컴퓨터 대국프로그램인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의 카이스트에서의 강연을 녹화, 신속하게 특별 편성, 방송한 것은 대전MBC가 타 방송사보다 순발력을 갖고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향후 다가올 미래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해주길 바란다(유덕순).</p>	<p>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미래비전을 그려볼 수 있도록 2015년 3월 17일 박영숙(유엔 미래포럼 대표)씨를 모시고 ‘미래 메가트렌드와 방송의 미래’ 강연을 가졌다. 앞으로 유익한 강연을 기획하여 방송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3월27일)를 지켜보았다.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지역 후보들이 출연하여 기조연설, 후보자공약, 상대방후보자 공통질문과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각 후보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공약 등을 열심히 설명을 했다. 상대방 후보와의 격렬한 언쟁은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점잖게 진행되었다.</p> <p>토론회는 진행자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주어진 시간 이외 시간을 많이 끄는 후보나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을 펼치는 후보는 진행자가 잘 정리해야겠고, 후보자간 이슈가 될 만한 정책적 대결은 토론의 장에서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한찬희).</p>	<p>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흑색선전을 차단하는 일이다. 사회자는 반드시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으며, 토론 중에도 이런 발언이 나오면 적절히 제지하고 있다.</p>	○		
교양	<p>우리지역에 분야별로 유능한 분들이 많다. 대학가에도 로봇, 인공지능, 의학융합 전문가(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각 분야별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좋겠다. 이 분들을 프로그램에 접목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오덕성).</p>	<p>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인명카드를 작성 네트워크화 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p>	○		